



한화 하주석(오른쪽)은 선구안을 개선하기 위해 수베로 감독과 경기 전 특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8시즌 기록한 한 시즌 최다 볼넷(141경기 28개)에 가까운 수치(26개)를 올 시즌 60경기 만에 해냈다. 수베로 감독(왼쪽 앞)이 특역과 함께 펜스에 스트라이크존을 그리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 한화 하주석의 선구안 개선 수베로 감독 맞춤형교육의 힘

펜스에 큰 네모 그려 9등분한 후 볼 판별 훈련 한 시즌 최다 볼넷 28개→60경기만에 26볼넷

한화 이글스 유격수 하주석(27)은 지난해까지 볼넷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타자였다. 통산 삼진(517개)/볼넷(118개) 비율도 4.38로 신통치 않았고, 공을 고르기보다는 직접 쳐서 나가려는 성향이 강했다. 한 시즌 최다 볼넷도 2018년의 28개(517타석)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시즌을 통해 출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구안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출루율을 중시하는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의 성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약 3주 전부터는 수베로 감독과 특별훈련을 하며 선구안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일 대전 SSG 랜더스와 홈경기를 앞두고도 하주석은 특별훈련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홈플레이트 쪽 펜스에 큰 네모를 그린 뒤 9등으로 나누고, 왼쪽 상단부터 Z자 형태로 번호(1번~9번)를 매겼다. 그림 작업이 완성된 뒤 수베로 감독이 약 10m 거리에서 공을 던졌다.

하주석은 그 공에 스윙을 하지 않고 공이 몇 번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는지, 또는 불인지를 알아내야 했다. 수베로 감독이 직접 나서는 만큼 하주석도 무척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선구안 향상을 위해 약 3주 전부터 경기에 앞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훈련의 효과일까. 하주석은 올 시즌 60경기 만에 26볼넷을 기록하며, 2018시즌 141경기에서 얻은 개인 한 시즌 최다 볼넷에 바짝 다가섰다. 출루율도 0.371로 처음 플타임을 소화한 2016년 이후 가장 좋다.

전체적인 타격 성적도 만족스럽다. 60경기에서 타율 0.291(234타수 68안타), 4홈런, 30타점, 7도루다. 2019년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 부상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시즌을 기점으로 본래에도 오른 수비력 또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수베로 감독 특유의 과감한 시프트를 확실히 이해하고 움직이며 내야 수비를 조율하는 여유도 생겼다. 수베로 감독의 만족도 또한 상당하다. 그는 “하주석은 수비를 할 때 주자와 타구의 스피드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움직인다. 그런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며 “백핸드로 타구를 처리한 뒤에도 항상 여유가 있다. 절대 송구를 서두르지 않더라.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속도와 송구 감각이 좋은 것은 축복이다. 내가 하주석을 최고의 유격수로 뽑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주석은 “감독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출루율에 신경 쓰면서 볼넷도 늘었고, 변화구에 헛스윙 하는 빈도도 줄어드는 등 선구안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스트라이크존을 인지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도 선구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롯데, NC 3연전 '밀리터리 시리즈'로 치른다

롯데 자이언츠는 22~24일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을 '밀리터리 시리즈'로 치른다. 선수단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고 보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로 이 기간 밀리터리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밀리터리 시리즈 기간 중 매 경기 입장 관중 선착순 700명에게는 태극기 클래퍼를 제공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LG 2군의 두 아버지' 황병일 퓨처스 감독과 황현철 운영2팀장을 만나다

# “성적·육성 다잡은 비결? 팀과 선수의 신뢰”

- 황병일 LG 퓨처스 감독

LG 2군 29승3무16패로 1위 질주 홍창기·이상영 등 이천 키즈 육성 황감독 “신뢰 동반돼야 훈련 성과” 황팀장 “감사인사를 받을 때 뿌듯”

‘성적과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KBO리그 10개 구단은 물론 프로스포츠 전 종목에서 내거는 기치다. 이 당연한 문장을 현실로 만든 사례는 손에 꼽는다. 냉정히 말해 한 마리 토끼조차 버거운 구단이 대다수다. 그래서 LG 트윈스 퓨처스(2군) 팀이 더 주목 받는다. 지금 1군에서 뛰는 대부분의 선수들을 육성해낸 데 이어 2군 리그까지 폭격하고 있다. LG 육성의 요람인 경기도 이천시 LG챔피언스파크를 찾아 황병일 퓨처스(2군) 감독과 황현철 운영2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타격 장인의 노하우, “기술보다 마음”

LG 2군은 지난해 75경기에서 42승 9무24패(승률 0.636)로 북부리그 1위에 올랐다. 남·북부 리그 통틀어 유일한 6할대 승률이었다. 1.5군급 베테랑들이 아닌 젊은 선수들 위주의 기용으로 만들어낸 성과라 더욱 돋보였다. 올해도 21일까지 48경기에서 29승3무16패(승률 0.644)로 1위다.

2군의 지상과제는 성적보다 육성이자. 이 대목에서 LG 육성팀의 저력이 드러난다. 지난해부터 1군에서 활약 중인 홍창기, 이상영, 문보경, 한석현 등은 대표적인 ‘이천 키즈’다. 바뀐 말해 2군에서 선수들이 ‘이기는 맛’을 보는 동시에 1군의 즉시전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타 구단에서도 “LG가 부러울 정도의 팀스를 갖겠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LG 퓨처스(2군) 팀은 육성과 성적을 모두 잡은 대표적 사례로 통한다. 2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1군의 즉시전력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그림이다. 그 중심에는 황병일 2군 감독(오른쪽)과 황현철 운영2팀장이 있다. 사진제공 | LG 트윈스

황 감독은 1990년 빙그레 이글스 타격 코치를 시작으로 SK 와이번스, 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LG를 거치며 지도자로 30여년을 보냈다. 1990년대 초반 원서를 구해 감독할 정도로 ‘공부하는 지도자’였고 그 결과 장종훈, 송지만, 최정, 최희섭, 김상현 등 한 시대를 풍미한 타자들이 지금도 은사로 꼽힌다. 세월이 흘러 60대 베테랑 지도자가 됐는데 여전히 20대 초중반 선수들과 부대끼고 있다. 세대차이를 극복한 비결은 마음부터 만드는 것이다. 황 감독은 “믿음, 소통 등의 팀스를 갖겠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선수는 팀을 믿어야 한다. 신뢰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훈련법으로 밸런스를 잡으려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더 잘하고 더 겸손하라”

현장을 황 감독이 총괄한다면 프런트를 비롯한 전반적 분위기는 황 팀장이 이끌고 있다. 황 팀장은 아마추어 사령탑으로 전배가 굵었고 NC 다이노스 스카우트로 나성범, 박민우, 노진혁 등 창단 멤버 수급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LG 스카우트로 재직하다 올해부터 육성팀장을 맡았다. 황 팀장은 “강릉

스프링캠프 때부터 방향성을 정확히 가져갔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매주 잡실에 올라가 팀장급 회의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이)상영이나 (문)보경이가 회의를 마치고 이천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해 달려와 인아준 적이 있다. 그럴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때 황 팀장은 이들에게 “더 잘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팬들에게도 늘 인사를 잘해서 사랑받는 선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LG 이천 챔피언스파크 진화는 계속된다

(2군 훈련장)

1500만원 상당 카메라 추가 설치 이규홍 사장, 매주 방문하며 소통 황팀장 “LG 우승이 육성의 완성”

10년의 암흑기를 거친 LG 트윈스는 체질개선의 포인트를 이천으로 설정했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1200억 원을 투자해 챔피언스파크를 조성했다. 2014년 7월 개장한 챔피언스파크는 지금도 KBO리그 10개 구단 2군 시설 중 최고로 꼽힌다.

투자는 지금도 이어진다. 타구속도나 투수들의 메커니즘을 측정할 수 있는 트래킹 레이더는 기본이다. 최근에는 동영상 분석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한 대를 추가했다. 홈 플레이트, 외야, 내야 좌우측 등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의 자세 하나하나를 체크한다. 황현철 운영2팀장은 “2군 전력 분석팀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며 공을 돌렸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선수들에게 외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황 팀장은 전력

분석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사무실에 들어와 간식을 먹으며 자신의 동작을 체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황 팀장이 가장 뿌듯해하는 점이다.

탄탄한 시설을 채용 콘텐츠 제작은 2군 현장과 프런트의 몫이다. 선수를 단기·중장기·집중 육성선수로 분류했다. 단기 육성선수는 1군에 구멍이 뚫렸을 때 즉시전력으로 투입되는 선수다. 반면 중장기 및 집중 육성선수는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아직 영글지 못한 유망주가 1군에서 헤매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유니폼을 벗는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1군에서 선수를 졸업할 때도 2군과 충분히 논의하는 이유다.

이천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천시 차원에서 LG 2군을 시의 구성원 중 하나로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호흡한다. 20일 1, 2군 경기를 앞두고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을 선수단 전체가 추모한 것



LG 퓨처스(2군) 팀의 터전은 경기도 이천 챔피언스파크다. 10개 구단의 2군 시설 중 최고로 꼽히고 있음에도 선수들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챔피언스파크의 전경. 사진제공 | LG 트윈스

도 같은 이유다.

이규홍 LG스포츠단 사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2군을 찾는다. 이천은 물론 강화도, 고양 원정까지 동행했다.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이들을 잘 육성해야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챔피언스파크 로비에는 이 사장이 선물을 ‘물음표’ 인형이 있다. 이 사장은 선수들 스스로 언제나 질문을 던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인형을 선물했다. 황 팀장은 “선수들도 부담 없이 대표

팀과 소통하고 있다. 신기한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에게 ‘육성의 완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 팀장은 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답을 대신했다. “육성의 목표는 결국 1군의 성적이다. 팬들이 LG를 보며 늘 아쉬움의 눈물, 희망의 눈물만 흘렸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팬들이 우승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LG 육성의 완성이 아닐까.” 이천 | 최익래 기자

## 롯데 불펜 최다이닝 김대우 어깨 부상 ‘날벼락’ 회전근개 부분 파열...최소 4주 이탈

롯데 자이언츠 불펜을 지행하던 김대우(37)가 부상으로 이탈한다. 양적 자원의 결핍으로 신음하던 롯데에는 최악의 소식이자.

롯데는 “김대우가 20일 투구 후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21일 구단협력병원인 좋은 삼성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진행했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최소 4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라고 전했다. 김대우는 25일부터 상동 재활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대우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30이닝을 소화하며 2승2패7홀드, 평균자책점(ERA) 3.30을 기록 중이었다. 팀 내 불펜투수들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척추 역할을 해왔다. 선수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 나이에 전성기를 누리며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아왔다. 하지만 부상 변수 때문에 잠시 쉽표를 찍게 됐다.

김대우에 앞서 5월 중순에는 셋업맨 최준용이 역시 우측 회전근개 중 하나인 견



김대우

갑하근 파열상을 입은 바 있다. 아직 최준용의 구체적 복귀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대우마저 이탈함에 따라 롯데의 불펜 구상은 꼬이게 됐다. 21일까지 롯데의 불펜 ERA는 5.97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